

시험문제 해킹·베끼기 출제...내신불신에 학생들만 피해

사건사고로 되돌아 본 광주·전남 2022

부실한 시험관리

올해 광주교육계는 고교의 부실한 시험관리로 교권이 실추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학생이 교무실에 몰래 침입해 노트북을 해킹하고, 교사들은 시험문제를 사설문제은행이나 EBS 교재에서 그대로 베껴서 출제하는 등 세 곳의 고교에서 부실한 시험관리가 드러났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교육당국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시험관리 부실로 인해 광주지역 고교 내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광주시 서구 매월

매년 반복되는 시험지 유출

교육당국 뚜렷한 대책 못 내놔

시험관리 시스템 재점검 나서야

동의 A고등학교에서는 학생 2명이 새벽에 교무실에 몰래 침입해 교사 10~15명의 노트북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들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갈무리한 내용을 며칠 뒤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험 문제와 답안을 빼돌린 이들의 대범한 범행 행각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대범한 범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학교의 부실한 시험문제 관리 탓이었다. 이들은 교사들이 퇴근한

심야에 잠금 장치가 해제된 창문을 통해 교무실에 침입했다.

창문도 잠기지 않은 교무실에는 시험 출제에 쓰인 교사들의 노트북이 방치된 상태였고 내부에 CCTV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트북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지만,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간단히 풀렸다.

A고교는 4년 전에도 시험지 유출로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가 구속되는 등 흉역을 치렀음에도 가장 기초적인 교무실 문 단속도 하지 않았다. 성적 육신에 의한 학생들의 이탈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학교와 교사의 부실한 시험관리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뿐만 아니다. 교사가 시험문제를 베껴서 출제해 재시험을 치르는 사태도 이어졌다.

지난 9월 광주시 북구 일곡동 B고등학교의 국어 교사는 중간고사 독서과목 시험문제를 인터넷 사설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통째로 베껴 출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26개 문항 중 절반인 13개 문항을 베낀

것이다.

교사는 출제 마감을 하루 앞두고 사설 사이트에 유료로 회원가입하고 시험문제를 내려 받아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해당 교사가 학교 업무에 쫓겨 문제를 출제하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인근 15개 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지와 동일한 문제를 배포했으며, 응시 학생 236명 중 43명이 문제를 미리 풀어봤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과 3개월 후 광주시 북구 C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물리 중간·기말고사 문제 대부분이 'EBS 수능특강 물리학' 교재에 실린 문제와 똑같이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학부모들이 학교와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실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2학년 2학기 물리 중간고사 20문항 중 객관식 10문항과 서술형 5문항을 '2023학년도 고3 EBS 수능특강 물리학' 교재에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기말고사 25문항 중 14문항도 같은

교재에서, 나머지 11문항은 '2022학년도 고3 EBS 수능특강 물리학1'에서 가져와 그대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학생 지도는 물론 각종 행정 업무에 사달리는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데 고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사안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결국 모든 피해는 대입을 앞둔 수험생들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활동가는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등 내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 시험문제에 예민한 상황이다"며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 개선과 함께 평가업무에 대해 교사들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 것이 신뢰 회복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A고교에서 답안지 유출을 한 학생에 대해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글> /정병호 기자 jushh@kwangju.co.kr

'5·18푸른새' 5월 가짜뉴스 바로잡기 나선다

시교육청 청소년 홍보단 명칭 확정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가짜뉴스, 역사왜곡 등을 바로잡기 위해 활동할 광주시교육청 청소년 5·18홍보단의 이름이 '5·18푸른새'로 선정됐다.

시교육청은 '청소년 5·18 홍보단 이름 짓기, 슬로건, 캐릭터' 공모전을 진행해 우수작 3건, 가짜 18건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모전 우수작은 '5·18 푸른새'로 시간과 장소, 외압에 굴하지 않고 활동한다는 청소년 홍보단의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슬로건 우수작은 5·18을 기억하고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으면서 평화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억된 오월과 함께 평화로'가 선정됐다.

캐릭터 출품작은 5·18 당시 시민들의 희기를 달았던 주먹밥을 활용해 탄생한 '민주·인권·평화'가 뽑혔다.

5월 주먹밥이 민주, 인권, 평화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청소년 5·18 홍보단도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캐릭터 우수상 당선작 '민주·인권·평화'.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시교육청은 오는 3월 청소년 5·18 홍보단을 모집해 5·18민주화운동정신과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해 홍보한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가짜뉴스, 역사 왜곡 등에 대한 역사 바로잡기 활동도 병행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 슬로건, 캐릭터 우수작은 청소년 5·18 홍보단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랑의 쌀 1004포 나눔 행사.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27일 북구기독교교단협의회가 후원한 쌀을 지역 돌봄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 차량에 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전·퇴학 등 중대조치 받으면

학생부에 기재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해 전학·퇴학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은 학생은 이런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는 강화됐지만, 특정 학생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침해해 '중대한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작성하도록 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개 조치 가운데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가 기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관련 조치의 절반가량인 출석정지(45.1%) 등을 포함할지 등 의견을 모은 뒤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실을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육부는 또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교원에게서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특별휴가 등을 내 학생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 학생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징계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소방 '남구 대촌 119안전센터' 문 열어

광주소방안전본부가 27일 광주시 남구 대촌동에서 남부소방 '대촌119안전센터' 문을 열었다.

대촌119안전센터 개소로 대촌 에너지밸리 산업단지과 교외 지역 등에서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센터는 총 사업비 39억여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착공한 뒤 올해 11월 완공했다. 안전센터(연면적 997.61㎡, 지상 3층 규모) 1층에는 사무실, 차고, 감염관리실, 방화복 세탁실로 구성됐고 2층

에는 심신안정실, 대기실, 3층에는 의용소방대실, 체력단련실, 통신실 등이 마련됐다.

안전센터에는 소방인력 25명, 차량 4대(펌프차 2, 구급차 1, 생활안전차 1)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정자 남부소방서장은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활성화 등으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원거리 지역 출동 공백 해소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